



# 손소희 소설의 서발턴 여성 재현 연구

이지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 2 신(新)국가 표상의 동요와 이방인의 경계 위협
  - 2.1 모멸적 생존의 긍정과 교섭의 정치성
  - 2.2 서발턴 인물의 관점과 내적 초점화
- 3 가부장적 호명의 교란과 불안정한 모방의 반복
  - 3.1 제도화된 사랑의 균열과 불안의 미해결성
  - 3.2 자서전적 서술자의 분열과 이중 초점화
- 4 근대성에 대한 재전유와 ‘차이’의 역사 쓰기
  - 4.1 혼종적 정체성의 개입과 발화 (불)가능성
  - 4.2 음성(voice)적 권위의 분산과 다중 초점화
-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손소희의 소설에 접근하여, ‘서발턴’으로서의 여성들이 소설 속에 재현되는 양상을 도출하는 것이다. 작가 손소희는 발표한 작품의 수와 한국 문학사에 그가 끼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학 연구사에서 다소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손소희 소설에 대한 초기 단평들과 1980년대 주로 제출되었던 작가론들은 그가 ‘여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순환하면서 남성 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2000년대 연구사에서는 여성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상이 수동적이며 전통적 여성관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적 논의가 중론이었다. 이에 최근에는 손소희 문학의 여성주의적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려는 연구가 등장하는 가운데 역사적 담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들이 제출되었다.<sup>1</sup>

하지만 여전히 연구 대상의 범위가 1950년대 작품에 국한되어 있으며, 발표 당

---

### 1 다음과 같은 학술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1호, 한국어문학회, 2008, 333-357쪽.

엄미옥, 「한국 전쟁기 여성 종군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261-292쪽.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309-348쪽.

박용재, 「속물들의 향연, 해방기 소설의 문화소비-손소희 「투전」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60호, 동악어문학회, 2013, 183-211쪽.

김정숙, 「손소희 소설에 나타난 ‘이동’의 의미」, 『비평문학』 제5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7-29쪽.

서세림, 「사랑과 정치의 길항관계-손소희의 『南風』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5권 제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5-28쪽.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의 서사-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6, 263-294쪽.

안수민, 「기만과 자멸(自戕),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재현-기억-손소희의 『남풍』(1963)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251-283쪽.

서승희, 「손소희와 해방-해방기 여성 귀환자의 소설 쓰기와 민족 담론」, 『구보학보』 제19호, 구보학회, 2018, 149-177쪽.

시의 담론적 배경과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문제가 충분한 연관성을 갖고 규명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손소희의 글쓰기는 ‘여성 문학’을 남성 문학의 대타항으로 규정하고 여성 작가의 정체성을 일반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해명할 수 없는 지점을 다양하게 내포한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작품을 손소희 작품세계 전반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여성 작가의 글쓰기를 일관된 것으로 상정하는 ‘본질주의’에서 벗어나 그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양상을 작품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제3세계 하위주체로서 ‘서발턴(subaltern)’ 여성의 재현 불가능성을 말한 가야트리 스피박의 포스트식민 이론을 주된 참조점으로 삼는다. 스피박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데올로기적 젠더 구성”<sup>2</sup>으로 인해 ‘젠더화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젠더화된 서발턴-여성이라는 개념은 제국의 식민주의 담론과 식민지의 민족적 저항 담론 모두에서 작동하는 남성 중심의 젠더 정치가 여성들을 이중적인 속박에 가두어 놓았음을 의미한다. 즉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의 회의적인 질문은 서발턴 여성이 권력 구조하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다만 그것은 서발턴 여성들이 갖는 저항의 힘을 무시하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결코 이데올로기적 재현 체계에 모두 포획될 수 없는 그들의 환원 불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언술이다.<sup>3</sup> 서발턴 여성들을 둘러싼 재현의 장(場)에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타자와 관계 맺는 주체의 책임감 있는 반성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박의 비평적 관점을 차용할 때 중요한 전략은, 당대의 지배 질서와

2 가야트리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86쪽.

3 스피박은 서발턴 주체들의 목소리를 단일한 의식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한다. 하라شم과의 대담에서 ‘서발턴’ 용어의 유동성과 확장성을 강조한 그의 말은 주목을 요한다. “제가 ‘하위주체’라는 말을 좋아하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그건 정말로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듭니다. 이론적인 엄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가야트리 스피박, 새라 하라شم 편, 이경순 역, 『스피박의 대담』, 갈무리, 2006, 318쪽.) 스피박이 전유한 그람시의 용어 ‘서발턴’은 결코 투명하게 재현될 수 없는 타자의 ‘이질성’을 담지한다. 그것은 지시적 의미를 갖지 않은 채 특수한 주변성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교섭’하며 살아가는 여성 인물들의 잠재적 정치성을 논구하는 일이다. “누가 참된 형식의 서발턴인가?”가 아니라 문학과 역사를 포함한 모든 텍스트의 내부에서 “서발턴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sup>4</sup> 헤게모니 ‘내부로부터’ 그 권위적인 구조를 탈-구축하려는 해체적 시도를 감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서사 텍스트의 재현 방식을 논한 제라르 즈네뜨의 서사 이론, 그중에서도 ‘초점화(focalization)’라는 개념을 유효한 분석의 틀로써 도입한다.<sup>5</sup> 즈네뜨는 서술하는 행위(narrating) 그 자체에 주목하여 시점이 아닌 초점화를 통해 텍스트 속 초점 인물의 발화와 서술자의 ‘음성(voice)’을 구분하며, 서술의 차원과 서사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본고는 즈네뜨의 이론을 따라가며 손소희 소설의 다양한 초점화 전략과 그에 따른 서술 양상을 서발턴 여성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연결지어 논의하려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손소희 소설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 각 장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난민’으로서 해방기 귀환자 여성들의 생존 욕망이 신(新)국가라는 이념에 균열을 가하는 모습을, 3장에서는 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욕망과 가부장적 재건 담론의 충돌 양상을, 4장에서는 1960~70년대 국가 근대화 기획의 역사적 서사에 개입하는 여성들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차례대로 탐색하고자 한다. 각 장의 1절은 스토리의 측면에서, 2절은 서술기법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며 손소희의 소설이 한국의 현대사 속에 서발턴 여성을 재배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 2 신(新)국가 표상의 동요와 이방인의 경계 위협

### 2.1 모멸적 생존의 긍정과 교섭의 정치성

손소희는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신세대』 창간호에 「피난민 열차기」라는 제목의 수기를 실는다. 만주에서 조선의 국경을 넘어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이 글에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조선에 도착한 귀환자의 내면을 허무함

4 파르타 차테르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성찰들-스피박 이후의 서발턴 연구」, 가야트리 스피박 외, 앞의 책, 146쪽 참조.

5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77-178쪽.

과 배신감으로 묘사한다.<sup>6</sup>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 집을 구하기도 일자리를 얻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피난민, 혹은 유랑민으로 지칭되는 귀환자들은 조국의 국경 안에서조차 ‘국가-없음’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야 했다. 이러한 서발턴들이 보여주는 무소속의 감각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국가 혹은 민족의 서사가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불안의 문제로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 해방기 이주자들의 삶의 양상이 소위 ‘귀환 서사’로 일반화할 수 없을 만큼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sup>7</sup>

단편소설 「탁류기」<sup>8</sup>에서, 지주의 아내였지만 월남하면서 봇짐장사로 전락한 ‘숙경’에게 남한은 낯선 이방의 땅이자 생계의 최전선을 의미한다. 숙경이 마주친 암시장의 전제민 여성들은 그녀와 달리 강력한 생존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제민’으로서 내국 난민의 삶이 피동성만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표방하는 생존의 논리가 누구에게나 매끄럽게 구축되는 것만은 아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낫다’는 명제를 내면화하려는 숙경의 혼란과 망설임에서 소설은 현재 상태에 대한 그녀의 모멸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암시장의 여성들과 달리 자꾸만 과거의 삶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거듭 회의하던 숙경은 옛 애인이었던 성규를 우연히 마주친 뒤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욕감을 느낀다.

소설은 숙경이 그녀가 파는 옷을 사겠다는 성규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미처 해소되지 못한 숙경의 심리적 괴리감, 암시장의

6 小伊(손소희), 「避難民列車記」, 『신세대』, 1946.3, 117쪽.

7 귀환이라는 지리적 이동을 일종의 민족적 ‘제의’로 서사화함으로써 정체성의 증명과 귀속에의 열망을 보여주는 ‘귀환 서사’들은 이주라는 현상을 국가로의 편입과 통합의 담론으로 재현함으로써 이주자들의 ‘이동성’이 갖는 체제 위협적인 힘을 유폐 혹은 축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종호는 해방기의 광범위한 이동과 이주 양상을 민족적·국가적 ‘귀환’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주민의 ‘이동성’은 항상 거부와 해방의 추구를 표현하므로, 이동의 문제를 일정한 공간의 문제로 포섭하고자 하는 국가건설의 기획과 늘 상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환’의 차원에서 분석되어 온 이주자들의 서사 역시 텍스트에 내재된 다양한 이동의 층위를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제36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29-335쪽.)

8 손소희, 「탁류기(濁流記)」(1947), 구명숙 외 편, 『한국 여성문학 자료집 2-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I』, 역락, 2011.

전재민 여성들에게도, 성규가 대변하는 고향의 기억에도 속할 수 없는 숙경의 혼란스러운 내면은 ‘이주’가 동반하는 다종다양한 욕망의 비균질성이 목격되는 한 가지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 집단 내부에서도 서발턴으로서의 삶을 재빨리 긍정하고 받아들여 생존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그러한 삶의 문턱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탁류기」를 개작하여 3년 후 발표한 소설 「야미시장에서」<sup>9</sup>에 나타나는 숙경의 모습은 한결 다르다. 여기에서 숙경은 성규와의 재회로 인한 “어떠한 치욕이라도 받을 결심”을 하며 암시장 여인의 생존 “철학”을 긍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전의 혼란스러운 정조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생존’의 논리에 가까워진 숙경을 통해, 소설은 서발턴 여성들 간의 상호 연대와 관계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결말에서 도매상 여인은 숙경이 암시장 거래로 벌금을 낸 것을 알고 흔쾌히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서 “이렇게 상호 부조하는 것이 이 암(闇)사회의 도덕”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도덕’은 해방기의 신국가 담론이 요구하는 ‘국민’이라는 집단적 동질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그녀에게 거리감을 느끼던 숙경이 먼저 “응석”부리듯 말을 거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분명 이들이 서로를 정서적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순간을 보여주며, 이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감응의 연대이기도 하다.<sup>10</sup> 그러한 공감의 양상은 ‘비-국민’에 대한 배제와 타자화에 의해 규정되는 국가의 이념적 자기동일성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을 향한 탈구축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은 해방기 특수한 상황에서의 모멸적인 생존 자체를 긍정하면서, 내국 난민으로서 서발턴이 처한 ‘내부의 외부’를 정치적 힘의 기반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신국가 건설이라는 지배 담론의 욕망 내부에서 그것과 교섭하는 동시에 그 내부로부터 구조적 파열을 시도하는, ‘혼성적인 공동체’<sup>11</sup>의 근거지로서 서발턴의 양가적인 위치는 국가권력을 향한 탈구축의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

---

9 손소희, 「야미시장에서」(1950), 위의 책.

10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들녘, 2016, 132쪽. 공감(co-feeling)의 힘은 자아와 타자의 상호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이 서로 다른 상황과 경험에 놓인 ‘차이’적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 속에서 점점을 발견하는 공감을 통해, 경계적 존재인 비체들은 관계 안에서 나와 너를 변화시키는 연대의 윤리를 상정할 수 있다.

11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37쪽 참조.

것은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허구적 경계를 흐뜨리고 뛰어넘으며 “공동체 없는 공동체”<sup>12</sup>의 (불)가능성을 상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 2.2 서발턴 인물의 관점과 내적 초점화

즈네쯔의 초점화 이론에 따르면 ‘내적 초점화’는 인물과 서술자의 정보량이 같은 경우로, 초점 인물의 발화가 주요해지는 가운데 서술자의 ‘말하기’ 즉 음성(voice)은 최소화된다. 이때 외부세계에 대한 해석은 초점화 대상인 인물의 시야에 의해 제한된다. 단편소설 「가두에 서는 날」<sup>13</sup>의 내적 초점 인물 ‘정선’은 해방 직후 고국으로 돌아온 만주 귀환자로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선의 내면은 해방기를 지배했던 강력한 민족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무용(無用)함을 절감하는 생존의 욕망 사이에서 일어나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준다. 조선 땅에서 겪는 삶의 신산함은 그녀의 혼란과 갈등을 “분노”로 전화시켜 정선으로 하여금 집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걷게 만든다.

이때 내적 초점화 대상으로서 그녀의 시선과 해석적 입장은 해방기 ‘서울’의 풍경을 조망하는 강력하고 유일한 기준이자 근거이다. 주지하듯 해방 직후의 서울을 바라보는 정선은 그곳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지 못한 서발턴, ‘이방인’으로서 관찰자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인지도 모른다”, “~모양이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같기도 했다”와 같은 추측성 문법을 구사하며 묘사되는 광경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정선 내면의 진술에서 나타난다. (내)‘나라’에 대한 민족적인 자각과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생존’에 대한 인식의 공존 혹은 충돌,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선의 혼란스러운 독백은 상반된 두 가치를 끊임없이 재사유하는 역동적인 담론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국의 한 개 노점상인 편”이 낫다고 여기다가 그런 고민을 “구름처럼 시름없이” 흐트러뜨리는 정선의 비일관적인 내면은 해방기 서울의 풍경에서 나타나는 모

12 가야트리 스피박, 문화이론연구회 역, 『경계선 넘기』, 인간사랑, 2008, 75쪽.

13 손소희, 「가두(街頭)에 서는 날」(1947), 앞의 책(『한국 여성문학 자료집 2-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I』).



순과 비균질성을 텍스트에 담아내기 위한 내적 초점화의 전략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도래할 신국가의 ‘국민’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도 그것과 거리를 두는 한 개인의 사유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는 정체성의 규정이라는 고정된 표상화에 내포된 “미결정성의 원리”<sup>14</sup> 즉 ‘나라’를 반복적으로 상기해야만 겨우 구성될 수 있는 정체성의 불확정성을 표시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소설의 후반부에서 내적 초점화의 대상이 갑자기 정선에서 남편인 ‘석진’으로 바뀌며, 생활에의 의욕과 계몽의 언술이 석진의 내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술자는 본인의 ‘음성’적 개입 없이 또 다른 초점 인물(석진)의 관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물(정선)의 담론과 사유가 대상화되는 권력 구조의 작동 과정을 가감 없이 제시해낸다. 정선을 ‘말 없는’ 계몽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남성 권력의 재현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해방기 이주자 여성들이 ‘젠더화된’ 서발턴으로서 한층 더 중층적인 억압 아래 존재하였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렇듯 내적 초점화는 서발턴의 재현 문제에서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서술자의 ‘책임감’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 3 가부장적 호명의 교란과 불안정한 모방의 반복

#### 3.1 제도화된 사랑의 균열과 불안의 미해결성

“여성(성)의 약진”<sup>15</sup>이 눈부셨던 1950년대, 전후 담론장에 등장한 ‘남성 위기론’은 국가 주도의 재건 프로젝트와 긴밀히 조응하며 무너진 젠더 질서를 남성-가부장 중심의 헤게모니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명의 정치는 여성에게 각종 기표를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규율 및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폭력적인 동일성의 논리하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채 ‘말 없는’ 서발턴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이 시기 손소희의 소설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불안정함을 폭로하는

14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6, 132쪽.

15 권보드래, 「아프레겔 변신담 혹은 신사임당 탄생설화」,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465쪽.

여성들, 즉 제도가 호명하는 바를 모방하려 하지만 언제나 권력의 요구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표상화”<sup>16</sup>를 보여주는 여성들에게 주목한다. 이렇듯 불안정한 모방이 반복됨으로써 젠더 질서의 균열은 더욱 가시화되고, 그 틈새로 여성들의 욕망을 말하는 목소리가 미세한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단편소설 「移徙」<sup>17</sup>는 한국의 전후 재건 담론이 호출한 가정의 수호자, ‘현모양처’ 표상과 결합한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의 환상임을 폭로하는 이야기로서 주목할 만하다. 억압된 여성의 욕망이 그녀의 내면을 통하여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갈등하는 과정을 핏진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지연’은 가부장제가 제도화한 ‘낭만적 사랑’의 허위를 표시하며 질서 내부를 부유(浮游)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남편인 ‘인수’와 연출해 보려는 낭만적인 부부관계는 “작위적인” 흥내내기에 불과하며, 인수의 무능함과 세계 곤란의 문턱에서 지연은 “질식”과 같은 감각을 느낀다. 이는 그녀가 결혼 전 지식인 여성으로서 지니고 있었던 욕망을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평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이루어진 근대적 가정이라는 당대의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여성의 욕망을 “질식”시키고 그녀의 자아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넣음으로써 완성된다. 이러한 남성 권력의 폭력적인 환상 속에서 지연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꿈”의 흔적은 지배 담론이 호명하는 그녀의 정체성에 균열을 낼 잠재적 위협으로 기능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지연은 임신 3개월의 진단을 받고 ‘말없이’ 인수와 이삿짐 트럭에 오르는데, 지연의 이러한 침묵에는 단순히 수동적인 패배로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징후가 있다.<sup>18</sup> 그것은 아직 봉합되지 않은 그녀 내면의 분열, 그 틈새에 여전히

16 호미 바바, 앞의 책, 197쪽.

17 손소희, 「移徙」, 『孫素熙文學全集』 6, 나남, 1990.

18 이는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가부장제의 억압에 수동적으로 희생된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주로 비판받아 왔다. ‘타자화된 여성상’, 여성 인물의 회생과 순응으로 인한 허무한 결말 처리, 여성 주체성의 포기 등이 그러한 지적의 일환이다. (김혜옥, 「손소희론-현실과 낭만적 환상 사이에서의 길찾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강소연, 「1950년대 여성소설 연구-손소희, 한무숙, 한말숙 작품의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7~18쪽; 이지영, 「손소희 소설의 결말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6쪽; 조미숙, 「손소희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호,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2008, 126쪽.)

히 소거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욕망의 흔적이다. 지연의 침묵은 끊임없이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시도를 또 다른 분열의 징조로 받아들이며 패배를 보류하는 ‘일시적 휴전’이자, 언제 다시 펼쳐질지 모르는 “사색의 날개”를 침묵으로 보호하는 전략적 포즈로 읽을 수 있다.<sup>19</sup> 지연은 “독을 품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송충이의 자세로부터 ‘가정’을 탈출하고자 욕망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다.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려는 지연의 욕망은 그녀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불안’의 형태로 남아있는 여성 욕망의 잔여를 통해 향후의 순응과 복종이 아닌 충돌과 갈등을 예고하며, 당대의 남성적 호명체계가 그 내부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전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 3.2 자서전적 서술자의 분열과 이중 초점화

앞서 살펴본 대로, 손소희의 중기 소설들은 여성들의 분열된 내면과 그로 인한 ‘불안’을 서사화하는 데 주력했다. 초점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러한 내면 탐색은 ‘자전적인’ 유형의 1인칭 서술자를 통해 나타난다. 즈네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서전적 서술에는 두 가지 행위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스토리 내부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주인공인 ‘서술되는 나(the narrated I)’와, 스토리 외부에서 그를 바라보는 전지적인 ‘서술하는 나(narrating I)’가 그것이다.<sup>20</sup> 그리고 이 두 자아는 나이 혹은 경험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인식적 틈새를 갖고 있는데, 이 틈새로부터 나타나는 초점화 양상이 바로 ‘이중 초점화(double focalization)’이다.

이중 초점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감을 ‘고백’하는 여성 인물들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미처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19 스피박은 쿿시의 『포』를 비평하며,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에서 흑인 노예 ‘프라이데이’의 침묵을 일종의 행위성으로 재해석한다. 목소리를 주겠다는 수전의 가르침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프라이데이는 그를 재현하려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주변의 이상한 수호자”이다.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역,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05, 257쪽.) 이러한 관점에서 지연의 침묵 역시 헤게모니 내부에서 ‘주변’적 목소리를 지켜 내는 서발탄의 제스처로 읽어낼 수 있다.

20 제라르 즈네뜨, 앞의 책, 243쪽.

하지만 이때 주체성은 결코 선명하게 포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늘 분열과 불안 그 자체를 가리키게 되는데, 단편소설 「양귀비꽃」<sup>21</sup>에서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보여주는 분열된 독백이 그러하다.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아이에게 이불을 덮은 채로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였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열은 결혼 전 사랑했던 ‘그’를 향한 “허락되지 않는” 소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요구하는 가부장 질서에 의해 발화가 금지된 서발턴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나의 내면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그의 자백은 제도화될 수 없는 여성의 욕망을 죄악시하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지배 질서의 언어를 모방하여 자신이 유죄임을 주장함으로써 “감방살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감옥은 “허울”뿐인 가정, ‘그’에 대한 나의 욕망을 그 자체로 죄악시키는 제도화된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이 아닌 감옥에 머물고자 하는 ‘나’의 선택은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욕망의 역설적인 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즉 가부장 질서 ‘내부의 외부’에 존재하는 감옥은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공간으로, ‘나’의 무고함은 죄를 자백함으로써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반복하는 ‘나’의 목소리를 일종의 ‘패러디(parody)’로 만든다.<sup>22</sup> 요컨대 ‘나에게 죄가 있다’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고백은,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언어를 함의하는 것이다.<sup>23</sup> 소

21 손소희, 「양귀비꽃」, 『孫素熙文學全集』 6, 나남, 1990.

22 닦았지만 똑같은 것은, 불완전한 모방으로서 여성의 패러디적 언어는 남성 권력의 언어를 비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정치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김미현, 『변역 트러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319-320쪽.)

23 ‘나’의 회상으로 이루어진 서사의 ‘속이야기’는 ‘겉이야기’가 품고 있는 진실을 뒷받침한다. 과거 머슴을 살던 ‘그’와 나는 남몰래 사랑을 느끼지만, 약혼하던 날 집에 늦게 돌아온 그의 눈에서 “푸른 불”(383)을 발견한 내가 비명을 질러 그는 쫓겨나고 만다. 그와의 이별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은 아이가 죽어가던 날 밤에도 그에 대한 생각에 나를 사로잡혀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 ‘나’가 느끼는 죄의식은 그를 욕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욕망을 끝내 공포로 외면해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다. 즉 ‘나’의 자백은 ‘그것은 나의 죄가

설의 결말에서 서술자는 초점의 위치를 ‘서술되는 나’에서 ‘서술하는 나’의 내면으로 옮기면서 서사를 이끌어 오던 내적 초점화의 양상을 이중 초점화로 달리한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서술자는 그것을 “아는 바 없”다고 말함으로써 ‘무지(無知)’의 포즈를 통해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고백이 갖는 신뢰도를 고의적으로 낮추며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언어를 ‘위장’한 모조품(mockery)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출시킨다. 그것은 남성 권력의 호명에 응답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난잡한 복종”<sup>24</sup>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에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나’의 부정, 긍정의 뜻을 함의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명령을 모조하고 조롱하는 “아이러니적인 타협”<sup>25</sup>을 맺게 된다. 스토리 외부의 ‘서술하는 나’가 초점 인물인 ‘서술되는 나’의 자백에 자신의 음성을 덧씌울 때, ‘나에게 죄가 있다’는 가부장 질서에 대한 복종의 언어가 불완전한 응답 혹은 모방에 불과했음이 폭로되는 것이다. 자서전적 서술에서 초점 인물과 외부 서술자의 존재가 끝내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분열의 양상은, 가시적인 발화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발턴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비틀어 말하고야 마는 저항의 전략을 보여준다. 즉 여성의 비틀린 목소리는 그녀를 죄인으로 낙인찍으려는 남성 권력의 호명체계 내부에 불확실성을 배치함으로써 그것을 교란하고 뒤흔드는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4 근대성에 대한 재전유와 ‘차이’의 역사 쓰기

### 4.1 혼종적 정체성의 개입과 발화 (불)가능성

1960~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강력한 지향적 가치인 ‘근대(현대)’와 이를 수행하는 ‘근대화’를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와 대립하는 ‘과거’의 경험을 부정과 극복의 대상으로 지명하였다. 효율성과 생산성에 입각한 개발의 사명은 목적론적 시간관을 보여주는 헤게모니 역사 담론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바

---

아니다’와 더불어 ‘나의 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24 주디스 버틀러, 조현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102쪽.

25 호미 바바, 앞의 책, 196쪽.

바의 주장처럼 서발틴의 “차이적이고 반복적인 시간”<sup>26</sup>을 통해 그 불안정성과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손소희 후기소설에서 관찰되는 여성의 행위성은 바로 그러한 ‘근대’적 서사의 연속성이 파열되는 곳에서 발견된다.

장편소설 『그 캄캄한 밤을』<sup>27</sup>의 표층적인 서사 구조는 남성 주인공 ‘최용준’이 시베리아 벌판에서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민족’적 역사의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당대 한국의 근대화 기획이 요구했던 헤게모니 역사의 플롯을 반영한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활동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지만, 소설에서 막상 일본군과 독립군의 충돌이 중심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소설이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부재하는 1970년대의 상황에서 새로이 ‘애국’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러한 표층 서사의 이면에서 ‘민족’적 동일화의 폭력성에 질문을 던지며 서사의 완결을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점인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혼혈인 여성 ‘카츄사’이다. 러시아 소수민족 출신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그녀는 스스로를 조국이 없는 “잡종”이라고 소개하지만, 최용준은 스스로없이 그녀가 “한민족”으로서 함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최용준의 태도는 카츄사의 혈통을 부정하는 동시에 통합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편입과 배제의 정치학”<sup>28</sup>을 보여주며, 그는 이 모순을 카츄사와 무한한 생명의 근원인 조국, 그에 대한 “순결한 향수”와 연결짓는 방식으로 은폐하고자 한다. 카츄사에게서 조국을 연상하는 최용준의 감각은 ‘잃어버린’ 것이기에 ‘되찾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조국/민족과 그녀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혼혈인인 카츄사가 당아재족인 어머니의 혈통을 부정해야만 아버지의 서사에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용준이 요구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애초부터 “부정성의 양식”<sup>29</sup>을 띠고 있음을 폭로한다. 최용준과의 결혼은 그녀가 탈(脫)성

26 위의 책, 345쪽.

27 손소희, 「그 캄캄한 밤을」, 『孫素熙文學全集』 9, 나남, 1990.

28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제23권, 민족문화사학회, 2003, 40쪽.

29 바바는 프란츠 파농의 ‘부정성의 양식’을 통해 근대성의 진보주의적 시간이 파열되고 분열된 담론적 이접의 공간이 드러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백인의 가공품”으로 구성되는 흑인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흑인의 육체와 백인의 정신으로 분열됨을 공언하는 존재이다. 이

화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국가 서사에 편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최용준이 운명적인 민족정신을 배태한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가 그녀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자신의 ‘아내’로 대상화해야만 성립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컨대 ‘근대’를 완성할 역사의 주체로서 남성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존재가 이용됨과 동시에 폐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30</sup>

그런데 한국 이름인 정진주, 카츄사 그리고 러시아식 이름인 ‘니나’까지 총 세 개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가 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이때 그녀의 ‘이름’이 갖는 미결정성은 끝내 ‘진주’와 ‘카츄사’ 두 가지 이름으로 분열됨으로써 그 자체 환원 불가능한 ‘차이’의 현존을 시사한다. 그것은 카츄사가 “최용준의 아내”가 되어 더이상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결코 통합되지 않을 이질성의 흔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민족 혹은 젠더 이데올로기로도 환원될 수 없는 서발턴 여성의 혼종적 정체성은 그녀가 제기한 의문의 답론을 ‘질문’의 형태로 텍스트의 이면에 남겨 놓게 된다. 그러한 미완의 틈새로부터 여성의 목소리는 ‘근대성’을 희구하는 근대화 답론의 환상이 모순에 불과함을 폭로한다. 이 지점에서 서발턴의 발화 불가능성은 가능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갖게 된다.

## 4.2 음성(voice)적 권위의 분산과 다중 초점화

손소희의 후기 작품들에서 서술 양상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나

---

때 일어나는 ‘마니교적인 변증법’은 헤겔의 부정(negation)에 따른 변증법을 거부한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정-반인 A-B의 대결은 부정과 지양의 개념을 통해 C라는 새로운 ‘합’으로 묶이게 되는데, 대화와 교섭(차이의 반복)등을 거치면서 식민지적 상황은 마니교적인 이원론-‘착란’으로 남게 될 뿐 ‘합’을 이룰 수는 없다. 여기에는 ‘반’을 부정하고 초월함으로써 “보다 높은 통합의 공공영역”(호미 바바, 앞의 책, 150쪽.)으로 진보하는 헤겔적인 역사가 부재한다. 이러한 ‘비변증법적’ 계기는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승인할 뿐이다.

- 30 가야트리 스피박(2005), 앞의 책, 347쪽 참조. 스피박은 시르무르 왕국의 왕비였던 라니 굴라리에 대한 역사적 텍스트를 비평하면서, 제국주의와 토착주의 답론이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성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폐제’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의 철학에서 서구의 ‘주체’를 위해 동원됨과 동시에 폐제되는 ‘제3세계 토착 정보원’과 유사한 형상의 서발턴니티를 의미한다.



타난다. 이와 관련되는 즈네뜨의 개념은 내적 초점화, 외적 초점화, 제로 초점화의 세 가지 양상이 뒤섞이고 맞물리는 ‘다중 양식(polymodality)’이다.<sup>31</sup> 다중 양식에서 분산된 초점화의 대상은 일정한 “권력 구조”<sup>32</sup> 속에서 스토리에 대한 힘의 균형 혹은 불균형을 부여받게 된다. ‘힘’이 누구에게 실리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sup>33</sup>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초점화가 어느 부분에서 중첩되고 또 교차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재현된 서사 세계의 표층과 심층을 규명해 내는 일이기도 하다.

장편 소설 『原色の 계절』<sup>34</sup>에서 서술자는 복수의 인물들 사이를 옮겨가며 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초점을 분배 및 위임한다.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이렇듯 복수의 초점자들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고 인식되며, 서술자는 그와 관련된 초점 인물들 저마다의 경험과 내면을 각각 조명한다. 이는 서술자의 음성적 권위를 축소하고 그에 따른 재현의 일관성을 경계하는 효과가 있다. 즉 초점화의 동시 발생이나 서술 차원의 경계파괴를 통해 역사의 균질적인 서사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은 전쟁의 피해와 고통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젠더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재현 문제를 놓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서술자에게 부여받은 초점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텍스트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선희’는 여성들과 모호한 애정 관계를 유지하는 순구의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서슴없이 “감상병 환자”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선희의 시선은 다른 인물들이 파악하지 못한 순구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심문하는 눈”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의 권위를 위임받음으로써 인물에 대한 정보량을 서술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희가 세민의 성폭행 이후 그

31 제라르 즈네뜨, 앞의 책, 183-198쪽 참조.

32 미케 발은 초점화에 의한 인물들 간에 힘의 불균형이 관찰되는 경우 그것은 서술자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점자가 지각적인 대상만을 보느냐, 환상 혹은 감정 같은 비지각적 대상까지 보느냐에 따라 독자를 설득하거나 독자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소명출판, 2014, 177쪽.)

33 김미자, 「서정인 소설의 다중 초점화 서술전략」,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112쪽.

34 손소희, 『原色の 계절』(1963-1964), 『孫素熙文學全集』7, 나남, 1990.



것이 단지 “파멸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킨 것뿐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합리화를 넘어 자신을 피해자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능동적인 인지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쇠파리”의 몸짓만을 지켜보는 남성 주인공 순구는 근대화의 신화에 소속되지 못한 허탈감을 죽은 여성들, ‘혜경, 윤희, 예선’의 이름들에 투영한다. 이들과 달리 죽음 대신 이탈을 선택한 ‘미숙, 지연, 선희’는 혁명을 기점으로 우울한 전후로부터 근대화의 시대로 ‘진보’하는, 혹은 그러기로 이미 예정된 발전의 서사에서 그 민낯을 폭로한 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떠남’은 수동적 퇴장이 아니라 저항의 한 방식으로서 탈출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즉 이 여성들은 순구가 그러하듯 자기 내부의 공허함과 현실의 고통을 무력하게 수용하는 대신, 텍스트의 무대를 떠나는 능동적인 선택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이탈의 무대화”<sup>35</sup>는 여성-타자의 형상화를 통해 남성-주체를 정립하려는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서사로 이 소설이 통합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들의 퇴장은 타자를 선불리 동일화하려는 보편 서사를 분열시키며 그 틈새에 새로운 대안 서사의 가능성을 기입한다. 이것은 서사 담론의 구성에 다양한 인물의 초점화가 끼어드는 것을 서술자가 허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서술자의 음성적 권위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권력 구조의 형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사의 일관된 진행이 지연되고, 그것은 다시 불연속적인 ‘주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5 결론

리타 펠스키는 근대성이 모순적이고 상충하는 가치들의 충돌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

35 가야트리 스피박(2005), 앞의 책, 202쪽. 스피박은 진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가 『제인 에어』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담론의 한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의 ‘권력’을 인식하고 말하는 인물로서 종결부 직전에 퇴장하는 흑인 유모 크리스토퍼는, 선불리 ‘말하는’ 자아가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타자의 불연속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러한 크리스토퍼의 이탈을 스피박은 “주변을 지켜내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부른다.

지적하며, 근대를 남성의 원리로 규정해 버리는 순간 여성의 특수성은 근대성의 외부에 영원한 타자로 놓일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6</sup> 펠스키의 말은 남성의 ‘타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성들의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했던 본 연구를 일견 요약하는 것 같기도 하다. 손소희 소설 속 여성들은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경유하며, 그 시대를 규정하던 제도의 비뚤어진 욕망을 거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응답함으로써 제도 내부에서 끝끝내 살아남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단순히 순응이나 복종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이면에 가려진 멈춤 혹은 망설임의 흔적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가시적으로 항거하거나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해도, 그 안에서 ‘여성’의 삶을 지속시키는 사소한 움직임으로부터 저항의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역사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맥락과 불일치하는 여성들의 삶에서 어떤 착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교차하는 억압적 기제의 이면에서 비균질적으로 존재하는 서발턴 여성들의 담론은 한없이 다면적인 동시에 다층적이다. 손소희는 그러한 비균질적 존재들을 균질적으로 재현하려는 지배 담론의 욕망을 경유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재현 불가능한 착종의 양상을 소설화하고 있다. 불가능성을 통해 가능성으로 가까워지는, (불)가능성의 차원에서 손소희 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리하여 투명하게 재현되지 않는 ‘인식론적 균열’로서 여성들의 서발터니티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현대를 구성해 온 자기동일성을 관통하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우리’를 구성하는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가? 손소희 소설은 그러한 물음을 역사뿐 아니라 문학사에 기입해 넣음으로써 여성 문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小伊(손소희), 「避難民列車記」, 『신세대』, 1946.3,

36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49-56쪽.

구명숙 외 편, 『한국 여성문학 자료집 2-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I』, 역락, 2011.  
손소희, 『孫素熙文學全集』 6, 나남, 1990.  
\_\_\_\_\_, 『孫素熙文學全集』 7, 나남, 1990.  
\_\_\_\_\_, 『孫素熙文學全集』 9, 나남, 1990.

### 단행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465쪽.  
김미현, 『번역 트러블』,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319-320쪽.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 37쪽.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소명출판, 2014, 177쪽.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들녘, 2016. 132쪽.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역,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05,  
202쪽, 257쪽, 347쪽.  
\_\_\_\_\_, 새라 하라쉽 편, 이경순 역, 『스피박의 대답』, 갈무리, 2006,  
318쪽.  
\_\_\_\_\_, 문화이론연구회 역, 『경계선 넘기』, 인간사랑, 2008, 75쪽.  
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86쪽, 146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49-56쪽.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77-198쪽, 243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순 역,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2005, 102쪽.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16, 132-150쪽, 197쪽,  
345쪽.

### 논문

강소연, 「1950년대 여성소설 연구-손소희, 한무숙, 한말숙 작품의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미자, 「서정인 소설의 다중 초점화 서술전략」,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97-122쪽.

-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1호, 한국어문학회, 2008, 333-357쪽.
- 김예림,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호,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309-348쪽.
- 김정숙, 「손소희 소설에 나타난 ‘이동’의 의미」, 『비평문학』 제50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7-29쪽.
- 김해옥, 「손소희론-현실과 낭만적 환상 사이에서의 길찾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75-110쪽.
- 박용재, 「속물들의 향연, 해방기 소설의 문화소비-손소희 「투전」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60호, 동악어문학회, 2013, 183-211쪽.
- 서세립, 「사랑과 정치의 길항관계-손소희의 『南風』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5권 제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5-28쪽.
- 서승희, 「손소희와 해방-해방기 여성 귀환자의 소설 쓰기와 민족 담론」, 『구보학보』 제19호, 구보학회, 2018, 149-177쪽.
- 안수민, 「기만과 자멸(自蔑), 식민지민 디아스포라의 재현-기억-손소희의 『남풍』 (1963)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251-283쪽.
- 엄미옥, 「한국 전쟁기 여성 중군작가 소설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61-292쪽.
-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기의 서사-지하련의 「도정」과 손소희의 「도피」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6, 263-294쪽.
- 이종호, 「해방기 이동의 정치학」, 『한국문학연구』 제36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27-363쪽.
- 이지영, 「손소희 소설의 결말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미숙, 「손소희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호,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2008, 109-133쪽.
-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23권, 민족문학사학회, 2003, 139-164쪽.